

웅장한 파도 풍성한 해산물...650명 사는 완도 최고 어촌

신지면 동쪽 끝에 자리 ... 완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
사람이 뿌리고 바다가 낚아 하늘이 기르는 양식업 중점
1.5km 펼쳐진 풍광 좋은 해변 명사십리 부럽지 않아

찾아오시는 길

완도 동고마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51)

▶ 승용차

한남 IC → 경부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동서전분기점) → 서영암IC
→ 영풍교차로(월출산, 성전방면) →
신제교차로(독천방면) → 해남교차로
(완도, 해남방면) → 신지대교 → 물하

▶ 고속버스

태교차로(신지면사무소 방면)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완도공용버
스터미널 → 장용-완도 농어촌버스
(약 50분) → 동고리정류장 하차(도보
1분)

동고마을은 제법 규모가 큰 동네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완도에서는 단일 마을로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300여 가구에 6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어촌계 인구는 약 200여 명에 이른다. 농공단지가 있는 축척리 다음으로 세(勢)가 크다고 한다.

신지면 동부 일대에서는 가장 큰데다 동쪽 끝에 자리한다. 마을을 떠받치고 있는 지세는 완만하게 뻗어 있다. 해발 151m인 범산은 남동쪽으로 뻗어 노적봉을 이루고 그것의 뒷산자락은 동쪽으로 내달려 기선봉(141m)을 떠받든다. 또 한 봉우리는 동촌리를 넘어 가인재를 타고 동두머리에서 멈춰 있다. 해안을 둘러치듯 마을을 감싼 산세는 유순하기 이를 데 없어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이 아늑해진다.

동고마을의 인상은 어느 어촌마을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이곳만의 특색이 있다. 바로 파도소리다. 깊고도 웅장해 자못 바다의 위엄이 느껴진다. 잔물결일 때도 파도가 연출해내는 소리는 원시적이면서도 목격하다. 바닷물은 포물선을 이룬 해변의 끝자락까지 밀려와 서서히 사라진다. 산화하듯 소멸하는 파도는 쓸쓸하면서도 가엾다.

이 마을은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동고(東古) 마을에 사람이 입향(入鄕)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쯤으로 짐작된다. 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정중순(82) 어르신은 말하는 마을의 유래는 이렇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청주 한씨가 이곳 지형이 좋아 처음으로 입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대편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겨울을 재촉해 그곳에 가보니 차씨라는 성을 가진 이가 읍막을 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의 말은 이곳 지세가 좋아 한씨와 차씨가 들어와 살면서 점차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일설에는 스님이 동자승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온다.

오랜 옛날 불심이 깊은 스님이 거처할 곳을 찾아 산천을 유람하는 중이었다. 그의 곁에는 동자승이 한 명 있었다. 스님이 동고리에 당도해 아늑한 뒷산에 올라 보니 풍경이 너무 맘에 들었다. 잔잔히 펼쳐진 바다와 확 트인 해변은 복잡한 심사를 풀어주었다. “드디어 내가 기거할 곳을 찾았구나.” 스님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곳에 터를 잡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동자승은 따로 기거하도록 동쪽 끝에 거처를 마련해준다.

동고리는 마을 이름이 유래된 내력이다. 동고는 예전에는 ‘동고지’로도 불리었다. 2008년 신지면에서 발행한 향토지 ‘완

도신지’에는 마을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력이 나온다.

“당초 신지도의 동쪽 끝 마을이라 하여 동간지라 부르다가 동쪽 산지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1789년 동산리(東山里)라 하였고, 동하리(東下里)와 합하여 동구지라고 불렀다. 1912년 행정구역명칭일람에 동고지(東古地)라 했으며, 1917년 전도부편리동명칭일람에 동고리로 명명했다.”

마을의 안쪽에는 곰솔숲과 백사장이 자리한다. 해변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는 바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 조성돼 있다. 이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름다운 해송이 도열하듯 늘어서 있다. 300여 그루의 해송은 바람 차단막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불어오는 바람 탓에 해송은 하나같이 뒤늦게 져 있다.

“우리 마을 해변은 대략 1.5km 정도 됩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명성에 가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름이면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차용석(64) 이장의 말이다. 또한 그는 “우리 마을에는 경지도 경치지만 해조류, 해산물 등 안 나는 게 없을 만큼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동고마을의 특산물은 툇과 다시마다. 10월 중순경 툇 포자를 가져와 바다에 이식하면 12월 중순 이후로 나물 툇을 채취할 수 있다. 툇의 효능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값싼 마른 툇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적잖은 타격이다. 그러나 동고마을 건트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할 만큼 품질이 좋다고 한다.

또한 동고마을에서는 다시마, 미역도 많이 생산된다. 청정한 해역이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상품가치가 높다. 웅장하게 밀려오는 파도 아래 풍성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바다에 있는 산물은 그저 산물일 뿐이라고. 양식장 산물은 수확해 판매가 돼야 비로소 돈이 된다고. 지당한 말임에도 어촌에서의 말은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하늘이 부조를 하지 않으면 바다의 양식장은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 풍경과 삶은 서로 다른 실재다. 사람이 뿌리고 바다가 낚아 하늘이 기르는 것이 양식이다. 변별되는 것 같지만 삶과 풍경은 그러나 한가지로 동일하다. 生景不二. 그 경계 위에서 꽃이 핀다.

이 푸르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가을이 지나브로 익어간다. 울 가을 동고마을의 툇과 다시마와 다양한 산물이 우리들의 식탁에 오를 날을 기대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동고마을을 감싼 부드러운 산세와 1.5km에 이르는 해변은 보는 이에게 아늑함을 선사한다. 드론으로 촬영한 동고마을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00여 그루의 해송이 우거진 숲은 바람을 차단할 뿐 아니라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동고리 특산물

청정 바다 툇·다시마·미역
값 조금 비싸지만 품질 최고

동고마을은 청정해역인 완도군 신지면에 위치해있어 특산물인 툇이 깨끗하고 품질이 좋아 다른 지역보다 생산 원가가 비싸 좋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마을주민들은 말한다. 동고리마을 툇은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채취하고 있으며 건트는 품질이 아주 좋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동고리마을 툇은 갈슘, 요오드, 철 등의 무기염류가 다른 지역 툇보다 높기 때문에 발육성장, 골다공증 예방 및 변비에방 효능이 높아 전국에서 많이 찾고 있으며 다시마, 미역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특산물 구매 문의 : 오기육 완도 동고리마을 어촌계장 010-4556-7925



“어촌 체험과 연계한 2·3차 산업에 마을의 미래 달려있어요”

오기육 어촌계장

“우리 마을의 미래는 어촌 체험과 연계한 2차, 3차 산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나 도의 지원만 된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오기육(55) 동고마을 어촌계장은 판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해산물을 팔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느냐의 여부가 어가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인데, 그의 말이 절실히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마을의 중요

한 현안이기 때문일 터다.

“외지에서 살다 귀어한지 12년 정도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패션물 유통도 했고 이곳 완도에서도 했지요.”

오 계장은 이곳이 고향이다. 한때는 도시에서 바쁘게 살았지만 내 고향이 좋아 귀어를 했다. 도시에서 생활했던 경험은 비록 바다생활과는 거리가 있지만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郷심이 깊어 보였다. 미래를 내다볼 때 마을에서 주력하는 품종 변경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수준이 높아지거나 수질이 악화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 계장은 마을로 피서를 오는 외지인들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동고마을 해변과 풍광이 좋아 찾아오는 것은 좋지만 거주하는 마을 주민을 배려했으면 한다.

“피서객들이 낚시를 하고 잡은 물고기 내장을 따서 아무 곳이나 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외지인들은 한 번 왔다 가면 되지만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터전이자 생명의 현장이니까요.”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